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철병거를 빼앗긴 2025 07 시스라



사사기서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 중의 하나는 여시사 드보라와 바 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솔왕국의 전쟁영웅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군단과의 전투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첨단무기라고 할 수 있는 9백 대의 철병 거 군단은 20년간 패배를 몰랐던 무적의 군대로써 이스라엘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 기 폭우가 쏟아지게 하셔서 철병거들은 순식간에 진흙뻘에 갇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고, 이때 달려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시스라의 부대는 전멸했 습니다. 총사령관 시스라만 목숨을 건져 간신히 도주해서 민가에 숨어들었

다가 야엘이라는 지혜롭고 담대한 여인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성경은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사가 칼을 버리는 일이요. 선장 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철병거는 시스라의 평생 자랑이요 업적이요 믿음의 근거였습니 다. 무적의 철병거들에 도취된 그는 보병으로만 구성된, 무기도 제대로 못 갖춘 이스라엘군을 무시하고 경 멸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폭우로 인해 흙탕물에 쓸려 가는 병거들을 보면서 그리고 살 기 위해서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나름 의존하는 철병거가 있을 것입니다. 철병거는 세상의 힘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 도 있으며, 인맥이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힘 믿고 교만하여 남 무시하며 살다가, 시스라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철병거를 빼앗길 때가 오기 때문 입니다. 철병거 없는 나는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패해 본 적이 없던 시스라는 한 번도 자신의 자랑인 철병거에서 내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생전 처음 겪는 폭우로 인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칠 때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스 라의 어머니도 아들이 철병거를 빼앗기고 고립무원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늘날 한국의 아이들의 철병거는 좋은 대학일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학벌이라는 철병 거를 타기만 하면 인생 성공의 기반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작 대학이라는 철병거를 타고 사회로 진출하면 현실은, 특히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명문대 출신들 이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 문제 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나가떨 어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병거에서 내리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시스라처럼 말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값진 노략물과 전쟁포로들을 선물로 가지고 올 것을 잔뜩 기대합니다. 이는 그녀가 어떤 가치관으로 시스라를 키웠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서라도 너만 성공하면 된다"는 철학으로 시스라를 키운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부모들도 시스라 어머니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 가면 수단 방법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해서 빼앗아 왔다 할지라도. 성공의 트로피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이들한테 승리의 철병거에 전리품들만 신 고 집에 오면 된다고 가르치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오만한 시스라가 아닌 겸 손한 믿음의 사람 야엘처럼 키워야 합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어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2025. 07

SAEROUN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9	30	1	2
6 CES 멘EI 수료식 새가족 128기 1주차 교육	7	8	9
13	14	15 커피브레이크 화요저녁반 개감	16
20	21	22	23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4	5							
		남성사역 FunFun Camp 힐팜 더 그릴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S하우스							
10	11	12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S하우스							
17	18	19				6			
					TUE				
	YEM 여름수련회		1	2	3 10	4 11	5 12	6 13	7 14
	7/18-20 한목예향(홈천)		15	16	17	18	19	20	21
24	25	26	22	23	24	25	26	27	28
24	23	20	29	30					
	중등부 여름수련회								
	7/25-27 청포대썬셋(태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8			
		S하우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2						1	2
3.		_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제주 단기선교			24	25	26	27	28	29	30
7/31-8/2			31						

2025. 07

1	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롬 7:1-6
2	수	율법, 죄를 드러내는 거울	롬 7:7-14
3	목	내 속에 거하는 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15-25
4	금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길	롬 8:1-4
5	토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롬 8:5-11
6	주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삿 7:9-25
7	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고후 4:7-10
8	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롬 8:12-17
9	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롬 8:18-25
10	목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롬 8:26-30
11	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12	토	성령안에서 품은 고통	롬 9:1-5
13	주일	미디안 정벌	삿 8:1-21
14	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딤후 4:6-8
15	화	하나님의 택하심	롬 9:6-13
16	수	긍휼과 주권의 하나님	롬 9:14-18
17	목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릇	롬 9:19-29
18	금	믿음에서 난 의	롬 9:30-33
19	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롬 10:1-4
20	주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 5:21-24, 35-43
21	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17-27
22	화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	롬 10:5-13
23	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롬 10:14-21
24	목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역사	롬 11:1-12
25	금	겸손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	롬 11:13-24
26	토	모든 이에게 미치는 긍휼	롬 11:25-32
27	주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엡 1:3-14
28	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 50:15-21
29	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롬 11:33-36
30	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롬 12:1-2
31	목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되어 섬기라	롬 12:3-13
4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OT)이란

OT⊨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해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 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01

SAEROUN QT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

from that law and is not an adulteress if she marries

another man.

롬 7:1-6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brothers and sisters—for I am speaking to those who know the law—that the law has authority over someone only as long as that person lives?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For example, by law a married woman is bound to her husband as long as he is alive, but if her husband dies, she is released from the law that binds her to him.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So then, if she has sexual relations with another man while her husband is still alive, she is called an adulteress. But if her husband dies, she is released

노니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 주관 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 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 So, my brothers and sist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 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 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For when we were in the realm of the flesh, the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us,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But now, by dying to what once bound us,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 묵상(MEDITATION)
------------------	---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_	_	 		_	_	_					_	_	_		 	_	-	_	_	 		-	_	_	 		-	_	 		-	 		_	-	_	_	 	 	-	_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	-	 	_	-	_	 _	-	_		 -		 -	-	 -		 -	 	 -	-	-	 	 -	-	-	-
-		-	-	-	-	-		-	-	-	 	_	-	-	 _	-	-		 -	-	 -	-	 -	-	 -	 	 -	-	-	 	 -	-	-	-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새로운QT

02

SAEROUN QT

율법, 죄를 드러내는 거울

롬 7:7-14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 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 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 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What shall we say, then? Is the law sinful? Certainly not! Nevertheless. I would not have known what sin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For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through the commandment put me to dea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was had it not been for the law. For I would not have known what coveting really was if the law had not said, "You shall not covet."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 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But sin,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produced in me every kind of coveting. For apart from the law, sin was dead.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 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 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Once I was alive apart from the law;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sin sprang to life and I died.	Did that which is good, then, become death to me? By no means! Nevertheless, in order that sin might be recognized as sin, it used what is good to bring about my death, so that through the commandment sin might become utterly sinful.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 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I found that the very commandment that was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 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 am unspiritual, sold as a slave to sin.	
 intended to bring life actually brought death		



12

내 속에 거하는 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15-25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For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but what I hate I do.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that does 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And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I agree that the law is good.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로다 So I find this law at work: Although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As it is,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but it is sin living in me.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 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 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 하는 것은 없노라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me,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e.	소물의 필름물 기소도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For I know that good itself does not dwell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is subject to death?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For I do not do the good I want to do, but the evil I do not want to do—this I keep on doing.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Thanks be to God,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my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SAEROUN QT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길

롬 8:1-4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 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 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For what the law was powerless to do because it was weakened by the flesh, God did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to be a sin offering. And so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ly met in us,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오늘 몬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HG/ADDI IOATION)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묵상(MEDITATION)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새로운QT

05

SAEROUN QT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롬 8:5-11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flesh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govern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hostile to God;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cannot please God.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but are in the realm of the Spirit of

You, however,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but are in the realm of the Spirit, if indeed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they do not belong to Christ.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아살아 있는 것이니라

But if Christ is in you, then even though your body is subject to death because of sin, the Spirit give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 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 리시리라

And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living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ecause of his Spirit who lives in you.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PSI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삿 7:9-25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 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 에 넘겨 주었느니라 During that night the LORD said to Gideon, "Get up, go down against the camp, because I am going to give it into your hands.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If you are afraid to attack, go down to the camp with your servant Purah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and listen to what they are saying. Afterward, you will be encouraged to attack the camp." So he and Purah his servant went down to the outposts of the camp.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 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 음 같은지라 The Midianites, the Amalekites and all the other

eastern peoples had settled in the valley, thick as

locusts. Their camels could no more be counted

than the sand on the seashore.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 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Gideon arrived just as a man was telling a friend his dream. "I had a dream," he was saying. "A round loaf of barley bread came tumbling into the Midianite camp. It struck the tent with such force that the tent overturned and collapsed."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 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 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His friend responded, "This can be nothing other than the sword of Gideon son of Joash, the Israelite. God has given the Midianites and the whole camp into his hands."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 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 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When Gideon heard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he bowed down and worshiped. He returned to the camp of Israel and called out, "Get up! The LORD has given the Midianite camp into your hands."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 추게 하고 Dividing the three hundred men into three companies, he placed trumpets and empty jars in the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The three companies blew the trumpets and smashed the jars. Grasping the torches in their left hands and holding in their right hands the trumpets they were to blow, they shouted,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Watch me," he told them. "Follow my lead. When I get to the edge of the camp, do exactly as I do.	21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 였는데 While each man held his position around the camp, all the Midianites ran, crying out as they fled.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하니라 When I and all who are with me blow our trumpets, then from all around the camp blow yours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 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벧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 으며 When the three hundred trumpets sounded, the LORD caused the men throughout the camp to turn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 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 리를 부수니라	on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The army fled to Beth Shittah toward Zererah as far as the border of Abel Meholah near Tabbath.	
	Gideon and the hundred men with him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just after they had changed the guard. They ble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 jars that were in their hands.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 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 였더라 Israelites from Naphtali, Asher and all Manasseh were called out, and they pursued the Midianites.	
20		, , , , , , , , , , , , , , , , , , , ,	21

24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 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 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벧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 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벧 바라와 요단 강 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Gideon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hill country of Ephraim, saying, "Come down against the Midianites and seize the waters of the Jordan ahead of them as far as Beth Barah." So all the men of Ephraim were called out and they seized the waters of the Jordan as far as Beth Barah.

25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 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 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 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They also captured two of the Midianite leaders, Oreb and Zeeb. They killed Oreb at the rock of Oreb, and Zeeb at the winepress of Zeeb. They pursued the Midianites and brought the heads of Oreb and Zeeb to Gideon, who was by the Jordan.

 -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고후 4:7-10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 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8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

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 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 려 함이라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revealed in our body.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롬 8:12-17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an obligation—but it is not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it.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 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s, so that you live in fear again;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 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 적용(APPLICATION)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야 할 것이니라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롬 8:18-25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For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of God to be revealed.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 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to sonship,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 암음이라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 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요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But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at all. Who hopes for what they already have?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that the creation itself will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freedom and glory of the children of God.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 으로 기다릴지니라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28			29

SAEROUN QT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롬 8:26-30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through wordless groans.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 하여 간구하심이니라 And he who searches our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God's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God.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 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32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1-39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 리를 대적하리요 What, then, shall we say in response to these things?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 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how will he not also, along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As it is written:"For your sake we face death all day long; we are considered as sheep to be slaughtered."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 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s,	
자시니라 Who then is the one who condemns? No one. Christ Jesus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성령 안에서 품은 고통

롬 9:1-5

		ŀ		
	ı	Ŀ	ŧ	
			4	i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 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I speak the truth in Christ—I am not lying, my conscience confirms it through the Holy Spirit—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도 원하는 바로라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people, those of my own race,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the people of Israel. Theirs is the adoption to sonship; theirs the divine glory, the covenants, the receiving of the law, the temple worship and the promises.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 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 라 아멘

Theirs are the patriarchs, and from them is traced the human ancestry of the Messiah, who is God over all, forever praised! Amen.

•	•	9	2		=	Ė	2			1	0	H	ļ	Ļ									11		2		_		10	9	t	C)		-	7,	וי		?									
		 	-	_		-	-						-	-	-	-	-	-		 				-	-	-						-	-		 	-	-	-		 		-	-	_	 	-	-	-
		 	-	_		 -	_	_					-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_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gorously.

미디안 삿 8:1-21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 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 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Now the Ephraimites asked Gide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Why didn't you call us when you

went to fight Midian?" And they challenged him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맏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But he answered them, "What have I accomplished compared to you? Aren't the gleanings of Ephraim's grapes better than the full grape harvest of Abiezer?

3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 이 이 말을 하매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 리니라

God gave Oreb and Zeeb, the Midianite leaders, into your hands. What was I able to do compared to you?" At this, their resentment against him subsided.

4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삼백 명이 요단 강 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Gideon and his three hundred men, exhausted yet keeping up the pursuit, came to the Jordan and crossed it.

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 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10 이 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 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십이만 명 이 죽었고 그 남은 만 오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Now Zebah and Zalmunna were in Karkor with a force of about fifteen thousand men, all that were left of the armies of the eastern peoples; a hundred and twenty thousand swordsmen had fallen.	14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매 그가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칠십칠 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He caught a young man of Sukkoth and questioned him, and the young man wrote down for him the names of the seventy-seven officials of Sukkoth, the elders of the town.	
11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 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Gideon went up by the route of the nomads east of Nobah and Jogbehah and attacked the unsuspecting army.	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 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Then Gideon came and said to the men of Sukkoth, "Here are Zebah and Zalmunna, about whom you taunted me by saying, 'Do you already have the hands of Zebah and Zalmunna in your possession? Why should we give bread to your exhausted men?"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Zebah and Zalmunna, the two kings of Midian, fled, but he pursued them and captured them, routing their entire army.	16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He took the elders of the town and taught the men of Sukkoth a lesson by punishing them with desert thorns and briers.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 서 돌아오다가 Gideon son of Joash then returned from the battle by the Pass of Heres.	17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 니라 He also pulled down the tower of Peniel and killed the men of the town.	

18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 같 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Then he asked Zebah and Zalmunna, "What kind of men did you kill at Tabor?" "Men like you," they answered, "each one with the bearing of a prince."	20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 더라 Turning to Jether, his oldest son, he said, "Kill them!" But Jether did not draw his sword, because he was only a boy and was afraid.	
19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Gideon replied, "Those were my brothers, the sons of my own mother. As surely as the LORD lives, if you had spared their lives, I would not kill you."	21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 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Zebah and Zalmunna said, "Come, do it yourself. 'As is the man, so is his strength.'" So Gideon stepped forward and killed them, and took the ornaments off their camels' necks.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딤후 4:6-8

6	전제
	For I offeri
	Onen
 7	
 7	나는 마치
	Ihave
	Ihave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and the time for my departure is near.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Now there is in store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award to me on that day—and not only to me, but also to all who have longed for his appearing.

15 s

44

하나님의 택하심

롬 9:6-13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 엘이 아니요 It is not as though God's word had failed. For not all who are descended from Israel are Israel.	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Not only that, but Rebekah's children were conceived at the same time by our father Isaac.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Nor because they are his descendants are they all Abraham's children. On the contrary,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사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In other words, it is not the children by physical descent who are God's children, but it is the children of the promise who are regarded as Abraham's offspring.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 기리라 하셨나니 not by works but by him who calls—she was tol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 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For this was how the promise was stated: "At the appointed time I will return, and Sarah will have a son."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 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Just as it is written: "Jacob I loved, but Esau I hated."	

SAEROUN QT

긍휼과 주권의 하나님

롬 9:14-18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What then shall we say? Is God unjust? Not at all!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
기리라 하셨으니 For he says to Moses,"I will have mercy on whom I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have compassion."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 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human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For Scripture says to Pharaoh: "I raised you up for this very purpose, that I might display my power in you and that my name might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and he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릇

롬 9:19-29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 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 냐 하리니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 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 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 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 적용(APPLICATION)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 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 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 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 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48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 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u> </u>	49

믿음에서 난의

롬 9:30-33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 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 음에서 난 의요

What then shall we say? That the Gentiles, who did not pursue righteousness, have obtained it,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but the people of Israel, who pursued the law as the way of righteousness, have not attained their goal.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 느니라

Why not? Because they pursued it no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As it is written: "See, I lay in Zion a stone that causes people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and the 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글이아, 저다고 글린이답니까:

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롬 10:1-4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Brothers and sist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that they are zealous for God,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MFD	ITATI	ONI)
• •	王谷田	IVITI	HAH	UNI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아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_	 -	-		 	_	-	-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_	 	-	-	-		 	_	-	 	-	-	_	 	-	-	 	-	-	 	-		 -	 	-	 		-	-	 	-	-	_	-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막 5:21-24, 35-43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 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When Jesus had again crossed over by boat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a large crowd gathered around him while he was by the lake.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 peopl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leader. "Your daughter is dead," they said. "Why bother the teacher anymore?"	
22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 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Then one of the synagogue leaders, named Jairus, came, and when he saw Jesus, he fell at his feet.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 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Overhea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him, "Don't be afraid; just believe."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 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He pleaded earnestly with him, "My little daughter is dying. Please come and put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be healed and live."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He did not let anyone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When they came to the home of the synagogue leader, Jesus saw a commotion, with people crying and wailing loudly.	

새로운QT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 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 라 잔다 하시니 He went in and said to them, "Why all this commotion and wailing? The child is not dead but asleep."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Immediately the girl stood up and began to walk around (she was twelve years old).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40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 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 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But they laughed at him. After he put them all out, he took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and the disciples who were with him, and went in where the child was.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He gave strict orders not to let anyone know about this, and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to her, "Talitha koum!" (which means "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2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17-27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On his arrival, Jesus found that Lazarus had already been in the tomb for four days.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Now Bethany was less than two miles from Jerusalem,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 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and many Jews had come to Martha and Mary to comfort them in the loss of their brother.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When Martha heard that Jesus was coming, she went out to meet him, but Mary stayed at home.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

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Martha said to Jesus,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 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ut I know that even now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리라

Jesus said to her,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Martha answered, "I know he will rise again in the resurrection at the last day."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 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Yes, Lord," she replied, "I believe that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God,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22

60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

롬 10:5-13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Moses writes this about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the law: "The perso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If you declare with your mouth,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 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But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says: "Do not say in your heart,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hat is, to bring Christ down)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profess your faith and are saved.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 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As Scripture says, "An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deep?'"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Fo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Gentile—the same Lord is Lord of all and richly blesses all who call on him,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message concerning faith that we proclaim: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23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롬 10:14-21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 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And how can anyone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 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 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But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ed the good news. For Isaiah says, "Lord,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 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 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 느니라

But I ask: Did they not hear? Of course they did: "Their voice has gone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 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 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Again I ask: Did Israel not understand? First, Moses says,"I will make you envious by those who are not a nation; I will make you angry by a nation that has no understanding."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 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 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And Isaiah boldly says,"I was found by those who did not seek me; I revealed myself to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 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 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But concerning Israel he says,"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역사

롣 11:1-12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 ·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 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민 지파라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 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 셨다 함과 같으니라 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 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 숨도 찾나이다 하니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 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 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5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 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 하느니라 64 65

25

겸손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

롬 11:13-24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 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 기노니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 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 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66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 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67

68

모든 이에게 미치는 긍휼

롬 11:25-32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 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 느니라 for God's gifts and his call are irrevocabl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된 것이라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brothers and sisters, so that you may not be conceited: Israel has experienced a hardening in part until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has come in,	30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 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 휼을 입었는지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and in this way all Israel will be saved. As it is	Just as you who were at one time disobedient to God have now received mercy as a result of their disobedience,	
written:"The deliverer will come from Zion; he will turn godlessness away from Jacob.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so they too have now become disobedient in order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And 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when I take away their sins."	that they too may now receive mercy as a result of God's mercy to you.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 아 사랑을 입은 자라 As far as the gospel is concerned, they are enemies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 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For God has bound everyone over to disobedience so that he may have mercy on them all.	
 for your sake; but as far as election is concerned,		

71

70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초청강사: 정홍렬 총장(아신대학교)]

엡 1:3-14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 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 함을 받았느니라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 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이 없게 하시려고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 치게 하사 that he lavished on us. With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 게 하려는 것이라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which he has freely given us in the One he loves.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 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to be put into effect when the times reach their fulfillment—to bring unity to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under Christ.	

72

73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In him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who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message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When you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put our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to the praise of his glory.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 50:15-21

니할까 하고 to him?" these instructions before he died: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What if Joseph holds a grudge against us and pays us back for all the wrongs we did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So they sent word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left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Joseph: I ask you to forgive your brothers the sins and the wrongs they committed in treating you so badly.' Now please forgive the si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When their message came to him, Joseph wept.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 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His brothers then came and threw themselves down before him. "We are your slaves," they said.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 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So then, don'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he reassur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SAEROUN QT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롬 11:33-36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 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Who has ever given to God, that God should repay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가 되었느냐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s been his counselor?"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for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

무엇입니까? 서 어떻게 -|까?



SAEROUN QT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AEROUN QT 하나님의 택하심 [로마서] 새로운QT

Practice hospitality.

31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섬기라

롬 12:3-13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For by the grace given me I say to every one of you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faith God has distributed to
1	each of you.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4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For just as each of us has one body with many members, and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so in Christ we, though many, form one body, and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We have different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f us. If your gift is prophesying, then prophesy in accordance with your faith;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if it is serving, then serve; if it is teaching, then teach,

3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 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 니라 if it is to encourage, then give encouragement; if it is giving, then give generously; if it is to lead, do it diligently; if it is to show mercy, do it cheerfull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Love must be sincere. Hate what is evil; cling to what is good.	
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 적용(APPLICATION)
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Be joyful in hope, patient in affliction, faithful in prayer.	
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Share with the Lord's people who are in need.	



개인기도제목 - 1주차

■ 개인기도제목 - 2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날짜	기도제목	응답

개인기도제목 - 3주차

1 개인기도제목 - 4주차

날짜	기도제목	응답

날짜	기도제목	응답

TESTIMONY 새로운QT

2025. 07

목회자&장로 연합 리트릿 간증

- 1. 최종용 장로 (S서초공동체)
- 2. 오철승 장로 (S강남공동체)
- 3. 김중제 장로 (C강남공동체)
- 4. 이록윤 장로 (W서초공동체)
- 5. 김세중 장로 (N강남공동체)
- 6. 최윤필 장로 (N서초공동체)
- 7. 이아론 목사 (E서초공동체)
- 8. 이경애 목사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장로입니다

최종용 장로 (S서초공동체)



교회 교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자부심을 할렠루야! 느끼게 한 여행이었습니다. 한 홍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장로들과의 하나됨을 위해 같 이 자전거를 타고 즐겼던 시절을 언급하실

참 행복했습니다. 모 때는 마음이 찡하고 눈물도 났습니다. 두들 박장대소하는 앞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한 홍 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사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하셨던 목사님들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 장로들의 탄산수의 언약을 결코 잊지 목사님과 장로님들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하나가 된 대한민 우리 같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국 최고의 교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외침시다. "나는 이 세상 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새로운 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와 장로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며 한 교회의 I다

오철승 장로 (S강남공동체)



이었습니다.

이번 목회자 장로 리 직분과 나이,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는 한 트릿의 키워드는 "워 몸이며 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팀"이었고 "하나됨" 깨닫고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친히 임 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 무엇보다도 가장 큰 키시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주님 사랑으로 은혜였던 것은 둘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 날 함께 예배드리며 던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라는 한 몸을 더 튼튼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

김중제 장로 (C강남공동체)



고, 마음을 나누는 시 간이었습니다. 이 시 대. 목회자와 장로가 지리라 믿습니다.

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격식보다는 진심 이 오가고, 직분보다는 인격이 만나는 자리였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목회자와 장로가 다는 점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은혜받 은 삶을 나누고, 이동 중에는 웃음과 격려가 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한 교회.

이번 여정은 단순한 같은 비전을 품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마음 휴식이나 관광을 넘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 한 교회를 섬기는 이번 리트릿은 무엇보다. 목사와 장로가 "교 사역자들과 장로들이 회 섬김"'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며, 교회 서로를 깊이 이해하 라는 한 몸을 더 튼튼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더 깊은 헌신과 더 넓은 이해로 이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한 2박 3 일,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 해졌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한 발걸음은 더 함께 손을 맞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

새로운교회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이록유 장로 (W서초공동체)



서로를 높이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신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 이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 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새로운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조를 매일 바꾸어 가 새로운 약속의 땅을 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놓고 기도하고 있습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니다. 여러 가지 계 살았는데, 새로운교회가 바로 그 교회, 서 획과 헌신들이 있겠 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바로 그 지만, 하나님은 무엇 교회였습니다. 일선에서 몸소 본을 보이시 보다 교회 리더십이 는 한 홍 담임목사님의 섬김이 빛으로 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목사 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 고, 저도 목사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다 고, 새로운교회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결단

이런 교회 모임은 처음입니다

김세중 장로 (N강남공동체)



TESTIMONY

만 오히려 허심탄 합니다.

것입니다.

이번 연합 리트릿을 통해 하나가 된 모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새로운교회

이동 시간 중 버스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돌다리도 안의 대화는 짧지 두드려가며"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대

회하게 영혼의 교 머지않아 새로운 약속의 땅이 열리는 제를 나누는 시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의 리트릿 여 이었습니다. 이런 행은 새로우교회 2막의 준비를 위해 리 교회 모임은 처음 더십의 영성을 다지는 여정으로 여겨졌 이라는 가이드 집사님의 고백은 사실일 습니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담임목사 님과 성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중보의



최윤필 장로 (N서초공동체)



함께 목욕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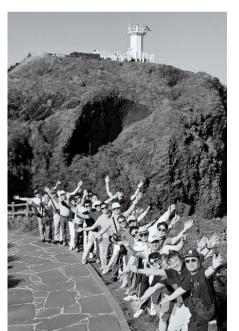
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였는데 목욕을 함께하고 가게 앞에서 웃고 떠들며 아 이스크림을 함께 먹었던 시간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제주공항에서 이러한 사례는 논문제목이라는 목사님의 대화 속에

특별히 목사님의 "달라도 한참 다른 교회의 연구발표 -말씀과 예배, 탄산 새로운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리트릿 사 온천에서의 시간을 레 중심으로" 문구가 생각나며 목회자 통하여 하나가 되 와 장로의 사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는 시간을 누렸습 지내는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 니다. 목사님들과 리며 돌아왔습니다.















거룩하 해 됨이은혜

이아론 목사 (E서초공동체)



"아버지여, 아버지께 서 내 안에, 내가 아버 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 어 우리 안에 있게 하 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서 나를 보내신 것을

17:21)

이번 리트릿은 여느 때와는 달리 밤잠을 설쳤 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고, 공 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왠지 모를 설렘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이번 리트릿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은 타이트했지만, 밀도 있게 진행되 었습니다. 고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후, 제주 최초로 세워진 '성내교회' 를 시작으로, 제주에서 1호로 안수받으신 이 도종 목사님의 순교지가 있는 '대정교회', 제 주의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방주교회', 성경 속의 식 물들을 직접 재배한 성서식물원 '비블리아' 등을 방문하며, 제주 땅 곳곳에 뿌려진 복음 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사 역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 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아침 예배 시간에, 한 홋 목사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할 것이 님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마 며, 숫자적 부흥뿐 아니라, 영적으로 단단하게 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 결속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서게 될 것 역 중 가장 위대한 기도문으로 평가되는 요 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삼위 일체의 하나됨 같이 영적 리더십인 목사님들 과 장로님들의 하나됨에서부터 부흥의 역사 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고 모두의 마음이 뜨 거워졌습니다. 이어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축복하고, 한 명 한 명 허그하는 시간에는 뜨거운 눈물의 위로와, 영 믿게 하옵소서"(요 적 동역자로서의 참된 하나됨을 경험하는 감 격이 있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리트릿의 일정 중간중간 이루어 진 '은혜 나눔' 시간에는 각자 새로운교회에 와서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 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간증했고, 그런 서로의 모습을 통 해 도전을 얻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 니다.

저는 이번 리트릿이 분열과 대립, 나뉨의 역사 로 점철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됨을 이루 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한국교 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의 목회자&장로 그룹의 하나됨과 연합 의 모습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 어떻게 세 워져야 하는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지를 보 여주는 귀한 사례이며, 동시에 부흥하는 교회 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자산임을 깨닫게 했습니 다. 더불어 새로운교회의 제2의 부흥이 이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여행

이경애 목사



로 의미가 있는 여행 은 마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할례 를 행하라고 말씀하

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목회자&장 로의 거룩한 여행을 명하셨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담임목사님께서 장로님, 집사님들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자 전거도 타시고 탁구도 치셨던 시간을 알기 에 이번의 여행이 남다르게 생각이 들었습 니다.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며 합력하여 선 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허 락하신 거룩한 여행이 선물로 주어진 것 입니다.

가장 Climax는 사우나를 통한 탄산 언약 을 맺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 고 제자들에게 세족을 하신 것 같은 역사적 인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의 헌신 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는 축제 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았으니 약속의 땅에 입성할 날 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고센

이번 목회자&장로 땅처럼 사용하셔서 새로운교회를 번성하게 연합 리트릿은 참으 하시고 수많은 영적대군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었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 랑하는지 그 깊이를 보는 나눔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새로운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 회에 충성하며 어느새 거목이 되셨음에 감 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주님 닮은 장로님들이 가득 계시니 새로운교회 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지 큰 기대를 하 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우리 새로운교 회의 목회자&장로들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고 새로유교회를 "아름다운 새로유교회" 로 부르고 싶다는 감동의 평가는 새로운교 회가 여러 면에서 한국교회를 격인해 가는 명실상부한 위치에 있음을 느꼈고, 이제 새 로운교회를 더욱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 광 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 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목회자와 장로 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독수리처럼 비상 하여 약속의 땅에 입성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Season 2가 펼쳐지리라 믿 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지는 아름다운 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 07

입교 및 세례자 간증

- 1. 주하늘 학생 (뉴젠 YEM)
- 2. 이병철A 청년 (청년1부)
- 3. 김소영B 성도 (C강남공동체)
- 4. 용사라 성도 (S강남공동체)

앞으로 해내님이 재너로 평생을 살 것을 약속합! I다

주하늘 학생 (뉴젠 YEM)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매 주일이면 교회를 습니다. 저희 부모님 은 저희 세 자매에게 항상 믿음이 먼저라 고 가르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어릴 때 예정 일보다 일찍 태어나서 몸이 많이 약하고 열경 기도 9살까지 하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어려운 상황 속에 서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믿음을 잃지 않으셨 고, 저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 해 보면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없었던 적은 없 었던 것 같습니다.

7살 때 처음 새로운교회에 오고, 저의 모든 주 변환경은 항상 하나님 믿기에 가장 완벽한 환 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저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을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5 학년 2학기 코로나가 시작되고 집에만 있어야 했을 시기에 매일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 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과 마음으로 느 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로 태어나, 경쟁심 이 강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어릴 때부터 가 져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거 되

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백점 맞게 해 주세 요, 제발 제발을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오고 가정예배를 드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리는 가정에서 자랐 매일매일이 성공으로 가득했던 인생도 잠시, 중학교를 국제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관계로 소셜미디어를 의지 하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울고 두려워하는 저에게 말씀을 읽게 되는 날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 는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만 저는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 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 부리며 왜 나 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불평불만을 했 습니다.

> 그렇게 2년을 가까이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너 무 힘들었던 저는, 부모님과 상의 하에 반년동 안 홈스쿨링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악한 마음을 먹었습니 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 고 싶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도, 친구와 어울리지 못한 것도 저의 잘못이었지만, 이 잘 못이 꼭 국제학교와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았습 니다. 이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 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머릿 속에 세뇌시키며 매일매일 10시간씩 보던 소 셜미디어를 다 끊고 오직 공부만 올인했습니 다. 그 결과,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하는 것 마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주위에서도 인정받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보 면 세상이 보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저의 몸과 마음, 신앙, 주변환경은 무너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공부를 잘 못하 고,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강박에 쌓 여, 잘 먹지 않고, 반년동안 하루 종일 공부만 한 탓에 몸무게는 28kg가 되었고, 그렇게 거 식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문제 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에게 잡힌 사람 마 냥 저는 꼭 성공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 다. 그리고, 살이 빠진 저의 모습도 보기가 좋 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공한 것 같은 느낌. 저의 어렸을 때 그 끈끈한 배려심 많은 하나 님의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세상적인 사 람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때의 저의 일 때문에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고, 저는 죽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 니다. 저의 이 악한 마음과 생활을 아셨지만, 끝까지 저름 붙드시며 저름 변화시키시려고 하셨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과 저희 가족의 중보기도로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매 순간 더욱 느꼈고. "하나님, 저를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포기 하지 말아 주세요. 저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게요". 저는 그런 주님께 앞으로 하나님의 자 녀로 평생을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어려 운 삶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리고 매일매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이셨기 때문에 제 인생에 하나님을 저의 삶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 고 입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살리시려 아들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 나님만이 저의 평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 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저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병철A 청년 (청년1부)



저는 유복한 집안에 서 태어나 어쩌면 남 들처럼 그저 평범한 삶을 삼았습니다. 어 몇 번 교회에 가본 적

로부터 10년 이상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며 습니다. 그때 저는 절박한 마음에 이 세상에 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생명의 절반을 가져가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저에 그 충격으로 인해 1년 뒤에 아버지마저 쓰러 지게 되셨고, 그 후로 아버지께서도 몇 년간 저 코로나로 인해 생명에 위기가 오셨고, 저 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게 되셨습니다. 늦둥이에 외동아들이었던 저 는 마치 이 세상에서 버려져 혼자인 것만 같 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었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믿 을 곳이 없었던 저는 나 자신을 믿기로 결심 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두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저는 힘든 나날을 그저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릴 적 부모님을 따라 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모태신앙 으로 새로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 은 있지만 딱히 신앙 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보며 한 번쯤은 교 은 없었고 무교로 지 회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 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 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렵부터 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하셨고, 그 책이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저는 연애 초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제가 안티 크리스천임 2019년도에는 어머니에게 생명의 위기가 왔 을 숨기고 나도 같이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4년 4월 28일 여 있는 모든 신에게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 자친구를 따라 새로운교회 주일예배를 드리 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성찬식이었습니 다. 화면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들이 나오 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고 있고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 함께 러나 결국 어머니는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에 저는 살면서 처음 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느껴보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꼈고, 발끝부 터 머리끝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소름이 끼 쳤습니다. 예배 내내 그 전율은 끊임없이 느 투병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마 껴졌고 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 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라는 찬양 가사 는 그때에도 어머니 때와 같이 동일한 기도 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 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않았고 2023년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안쓰럽고 죄송스럽게 느껴졌고, 그리고 동시 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 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

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은 꿀 같은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 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커 내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와이프 다란 기적들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가 된 그때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우리 가정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숨을 쉬고 있다 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 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주기 위해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조차 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8일은 저의 두 번째 생일과 같 습니다. 그 후로 121기 새가족을 수료하고, 지금 저는 새로운교회에 잘 적응하며 신앙생 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요로 가득했던 저

이제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닌 나를 죽기 의 알고리즘은 이제 찬양으로 바뀌었고 아직

새로운QT

개인적으로는 성경통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허락하 서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석 같은 여섯 명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한니다

김소영B 성도 (C강남공동체)



어릭 때부터 교회 를 다녔지만 예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나 기 전에는 세상의 즉 거움을 따라 살았습 르는 분노와 함께 폭

그러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는 데. 그곳 한인교회의 청소년 수련회에서 하 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 를 하던 중 멈추지 않는 눈물과 방언으로 그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이전과는 완 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즐기던 세상의 문화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변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과 언행이 변하며 삶이 바뀌고, 선한 열정이 생 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 했습니다. 몇 년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결혼 후 여섯 명의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 육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아이들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려 '참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

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 께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리고 허우적대는 그의 자녀를 바라보는 아 버지의 마음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니다. 또한 출처도 모 2023년과 2024년은 삶에 큰 시련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눈을 마 력적인 언행을 서슴 주치거나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두려움과 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부노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매일 눈물로 침대를 적시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 년 새로운교회에서 순모임을 시작하며 순원 부들의 기도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 다. 우울증에서 이어진 남편과의 관계의 어려 움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 리며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 었던 중에 첫째, 둘째, 셋째와 함께한 특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도 선 물이었음을, 분주한 삶에서 멈춰 서서 제 인 생의 가장 귀한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게 하 신 주님의 계획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 안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저의 꿈과 열정을 내려놓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저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사명은 보석 같은 여섯 명의 아이들에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 아이들이 하 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누린 복음을 전하는 운 날들을 딛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날을 기대합니다.

히윤이가 자신과 세상을 윤택하게 하도록 믿음이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용사라 성도 (S강남공동체)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 래 하나님께서 기뻐하 시는 작은 천국을 만 들어가고 싶다는 저 희의 소망을 기쁘게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는 결혼 3달 만에 저 희 가정에 작고 소중

한 아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 된 임신 기간은 저의 주권을 철저하게 내려놓 는 것이 무엇인지 난생처음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대부부이 출산 2주 전에서 당일까지 일을 했기에 저 역시 출산 전 까지 근무가 무리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 과 달리 제 몸은 조금도 제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출산 당일까지의 극심한 입덧과 빈혈, 걷기 힘든 환도선다가 임신 초기부터 시 작되었기에 주기적으로 링거를 맞아야만 했고 몇 번의 교통사고 위험을 겪으며 생각지도 못 한 빠른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저는 그간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시며 존중해 주셨는지 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꽤 저 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생각했던 제 믿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불충했는지 뼈저리 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은 저의 주 권과 통제와 제 뜻을 내려놓으며 회개하고, 뱃 속에 아가가 있듯이 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재할 수 있는지 몸으 로 체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후에 만난 작고 소중한 아가는 곧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분유를 먹지 못해 체 중이 계속 떨어져 NICU에 입원하게 되었습니 다. 저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저와 함께 우읔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의 호흡을 지 켜주셨던 주님께서 저희 아이의 호흡 또한 지 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숨 쉬듯 기도하고 밥 먹 듯 찬양을 하며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 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만난 저희 아이는 제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책임지고 통제하 고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 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 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선물임을 믿 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기에 이 길고 긴 여정 에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 명임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아이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윤, 복희, 불을/윤택할 윤, 희윤이가 중환자 실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넘 치게 받아 자신과 주변과 세상을 유택하게 하 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하고 축복하며 지은 이 름입니다. 이 이름처럼 희윤이가 자신과 주변 과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윤택하 게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2025. 07

에버그린 스쿨/야유회 간증

03

- 1. 고경효 성도 (S강남공동체)
- 2. 온기수 집사 (C강남공동체)
- 3. 김만기 성도 (N강남공동체)
- 4. 유병석 성도 (W강남공동체)
- 5. 오명숙 성도 (C강남공동체)
- 6. 임필환 성도 (우면공동체)

에버그린 / OF유

해를 거듭할수록 은혜가 더욱 풍성하며 도전 이식도 자기남을 경험합니다

고경효 성도 (S강남공동체)



그린 스쿨을 통해 성도들과 즐거운 교 다. 제를 나누고 말씀 접하기 어려운 주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정을 계속해 오면서 성경말씀을 더욱 세 밀하게 읽게 되고 말씀 깊은 곳에 있는 심 을 느낍니다.

른 인도자님의 말씀 해석과 받은 은혜를 습니다.

이번 학기 교재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참으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전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 성도들을 격려하며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곧 저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향 큰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르침으로 알아 받아들이고 이행하

봄 학기와 가을 학 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었습 기에 진행하는 에버 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다음 학 기에서 기대하며 나눔과 공부를 기다립니

커피브레이크 말씀공부에 이어 서예의 역 공부와 함께 평소 사, 중보기도의 힘, 그리고 교회 음악의 역 사 등 흥미로운 주제로 명강의를 듣게 되 들에 대해 특강을 들으며 지내는 것이 큰 어 참으로 유익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 히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섬김인 학기마다 반복되는 커피브레이크 공부과 지 깨닫고 그 가치를 다시금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장면을 이미지로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강사님의 오한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커지고 있음 제안에 제게 큰 깨달음과 기쁨이 되는 기 회가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은혜가 더욱 풍성하며 사역으로 정말 바쁘신 목사님들과 강사 도전 의식도 자라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커피브레이크 인도자로서 학습자들과 나 주 빈틈없이 큐시트 준비와 함께 진행되는 누기 위한 준비 공부를 통해 미처 깨닫지 스쿨 클래스에 참여하며 명문학교 학생이 못했던 부분을 담당 목사님의 풀이와 다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즐거운 배움과 나눔 이 있는 과정들이었고 준비에서부터 완성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어 또한 기쁨이 컸 까지 물 흐르듯 진행해 주신 담당 목사님 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리더십께도 감사드 립니다. 다음 학기를 기다리며 은혜의 과 리오며 저희 에버그린 스쿨이 주님께 더

에버그린 세대에게 꼭 필요한 스쿨에 감사한 I다

온기수 집사 (C강남공동체)



님을 비롯한 우리 새로운교회 목회자님 들과 리더십들이 에버그린 세대에 대해 큰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 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따르지 못함에 미 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는 연배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중 반나절 의 시간을 낸다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 로 빠지지 않고 교육에 임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빌립보서 말씀에 대해 강의를 듣고 조별 나눔을 하면서 바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끊 임없는 열정을 보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

지난해 가을 학기 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바울 에 이어 이번에 두 의 삶을 본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 번째로 에버그린 쁨이 충만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스쿨에 신청하여 을 전파하는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 참석하였습니다. 에 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그린 스쿨에 참 스쿨의 교육 커리큘럼은 성경공부 위주 여하면서 담임목사 가 아니고 에버그린 세대에게 필요한 인 무교양 과목이 적절히 균형 있게 짜여 있었던 것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 스쿨 과정에 참여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 뿐 만 아니라 팀장님과 총무님 등 많은 지 원 팀원들이 매우 열성적이고 헌신적으 로 섬겨 주시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 비록 우리가 은퇴하고 사회적 활동이 없 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학기 에버그린 스쿨을 기대합니다.

생애 남은 시간을 해 남는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 보려 합니다

김만기 성도 (N강남공동체)



간이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어 교회를 모르고 성경 난 세월을 후회하며 이제 늦었지만 생애 남은 시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

아 보려 합니다. 에버그린 스쿨에서의 시간 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

1조 선배님들, 담당 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 사님들과 강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많은 깨달 도 모르며 살아온 지 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것을 삶에 적 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섬겨 주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에버그린에 주는 사랑을 느낍니다

오명숙 성도 (C강남공동체)



에 주는 사랑을 느낍 니다. 무엇보다도 담 임목사님이신 한 홍 목사님의 사랑과 관 강사님의 강의 주제

까지 직접 선정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께 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더욱 성도 한 분 한 분 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져 저 개인적 으로는 뭉클했습니다. 그러기에 기쁜 마음 으로 특별 강의에 더욱 집중하여 졸지도 않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요즘 영적으로 느리고 나태해져가고 있었는

에버그린 스쿨을 통 데 열정에 넘쳐 성령의 역사들을 보며 섬겼 해 교회가 에버그린 던 한 때의 시절로 위로 삼고 만족하려 했 던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제가 몸 닦고 있 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 음을 다해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

심에 감사드립니다. 맺어준 조를 통해 나누는 말씀과 간증에서 각자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고. 지 금도 뿌리가 견고한 노년들의 삶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 게 서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 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담당 목사님의 편안 한 사랑, 귀중한 시간들을 열심히 남겨주시 고 잘 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강의 내용을 는 전체 팀장님, 우리 조장님, 모두 감사드립 니다.

많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 감사드립 I다

유병석 성도 (W강남공동체)



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 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 사와 인도하심은 과거가 아닌 오늘날에 도 동일함을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 로 쓰임 받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쁨이 충만하고 겸손하며 하나 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되는 삶, 오 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굳게 다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예의 역사 강의를 통하여 서예는 붓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과 먹과 한지가 함께 어우러진 조형예술 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아름다움 을 추구하여 글자를 예술로 승화시킨 선 조들의 기품을 보았습니다. '중보기도의

에버그린 스쿨 1학 힘' 강의를 통해 실제 기도하며 기도의 기 동안 찬양과 예 파워를 느끼고자 결단하게 되었으며 교 배를 통해 많은 사 회 음악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교 랑과 은혜를 체험 회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뿐만 할 수 있어 감사드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립니다. 빌립보서 하고 신앙을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말씀을 통해서 사 는 것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예수 그 마지막 7주 차에 봄 야유회 '화려한 외 출'도 뜻깊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즐거 우 교제 그리고 세계문자박물관 관람을 통해 벽화와 쐐기문자, 이집트문자, 마야 문자, 한자와 한글, 훈민정음 등 다양한 문자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명을 발전 시켜 나아갈 수 있었고 인쇄술과 번역의 기술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 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에 깊 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장소를 옮겨 수상 택시를 타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목사님과 에 버그린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배려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시로 남기는 에버그린 스쿨

임필환 성도 (우면공동체)



감사를 드립니다. 새 로운교회 한 홍 목사 님과 에버그린 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께 먼저 찬양과 통해 소나무의 송진 체취와 송진의 연소를 통해 굴뚝 그름을 모아 채로 쳐서 아교와 적당히 혼합하여 반죽을 하여 그늘에 잘 말려 먹을 만드는 방법과 붓을 만드는 과정 목사님, 부서 팀장님, 과 한지를 만드는 절차를 신명나게 설명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상시 저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을 담아 시로 남겨봅니다.

은혜입니다.

에버그린 특강 중 서예에 대한 주제로 묵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송연묵과 유연 묵 중 조선의 송연묵의 제조과정, 수공업을

林英換書

기도위심정사태산장보 :기도하는 마음의 고요함은 태산 속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습니다.

중보기도위 봉주명이은혜언 :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을 받드는 것이고 은혜입니다.

야소컨하귀중 찬송이환희이감사야 : 예수님이 천하에 귀한 주시며 찬송으로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학교 간증

- 1. 김종욱C 성도 (강북공동체)
- 2. 조현경A 성도 (우면공동체)
- 3. 이은재 성도 (C강남공동체)

새로운QT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욱C 성도 (강북공동체)



우리 부부가 가정을 이룬 지 벌써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신 혼 7개월 되던 차에 첫째 아이가 생긴 것 을 알았고. 그 이후 로부터 지금까지 두 아들을 키우는데 집

중하느라 사랑의 감정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을 가지고 부부학교 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첫날부터 한 홍 목사님과 강정현 사모님의 성경적인 워리로 돌아가서 가정을 바라보 는 강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준비하 신 가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 리 결혼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 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서로를 향 해 날카로운 비판의 역할을 하던 말씀들이 올바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 내의 꼼꼼함을 답답해했는데, 그것이 제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챙겨주는 귀한 성품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 가 생각하는 융통성이나 추진력도 아내에 게는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를 돕기 위해 배필로 창조하신 이유를 찾

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다른 성격과 성향 이 공격할 거리가 아닌, 답답함이 아닌, 제 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마치 퍼즐의 다른 조각들이 맞춰져야 완전한 그림이 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아 내는 깨지기 쉬운 유리병처럼 조심히 다뤄 야 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인 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리고 섬세한 마음 을 가진 제 아내.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반성하게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한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지라도 얻어가리라! 좋은 남편이 되지는 못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히리라"는 베 해도, 노력하는 남편은 되자! 라며 제 자신 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뜨끔하기도 했습 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 데,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를 귀히 여기지 못했다면 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 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갈등을 풀어가는 강의, 소통의 기술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삶에 적용해 볼 포인 트들 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나-전달법'이나 '경청의 기술'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툴게 소통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성향이 전혀 다른 아내의 생각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유일한 정답 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 었습니다. 제 성향을 앞세우기에 싸움의 불 씨가 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벽을 쌓고 있 었다고 느꼈습니다. 제 성품의 오리지널리 티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에 조금 더 제 가 신경 쓰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 었습니다.

물론 11년간 굳어진 습관들이 바꾸는 것 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 하려는 노력, 제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심 을 믿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따라가는 노력 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오늘도 9 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놓치 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이 많기도 했지만, 일에 집중하는 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랑이 넘 시간이 많아서 함께하지 못했던 부부시간 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

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의지만 있다면 방법 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나온 부부학교 과제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겼습니 다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하는 시 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손을 잡고 걷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 다. 아침과 밤을 넘나들며 업무에 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부데이트 하는 날 시에 맞춘 알람을 듣고 아내를 위한 기도 을 정해서 평생 과제로 지키려고 노력하겠 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 치는 가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호히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수막**한 I다

조현경A 성도 (우면공동체)



를 통해 우리의 관계

를 복음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 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 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를 버리고 저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감정 특별히 부부학교의 시간은 남편이나 자녀 을 기도로 바꾸고, 필요를 기도로 바꾸는 가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집중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에서 제가 어떤 말투와 태도로 대하고 있었 는지,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익숙함 속의 자만이 있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배움은 단지 부부 가족과 제안의 많은 문제들이 소망의 기도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 말과 태도의 존중이 복음의 표현이라는 조차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건 니다. 한 홍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부부학교는 저희 가정에게 또 하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에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서 꿈꾸시는 가정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하신 그 메시지가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소망을 품게 해 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저는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데 너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 바빠서, 남편과 가족을 '누리는' 삶을 살

저희 부부는 그동안 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큰 갈등 없이 지내왔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익숙하고 다고 생각했고, 우린 잘 안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에 대한 감사와 꽤 괜찮은 부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 자주 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런데 이번 부부학교 또 마지막 강의에서 저는 깊은 회개와 도전 을 받았습니다. 항상 가족에게 그리고 하나 님께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수고를 알 아달라고 요구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태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가정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일렁이며 덮쳐 오던 우리 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미 울 때도 있었고, 실망스러웠던 가족의 모습 용기가 제 안에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낍

선물이자 회복의 이정표였습니다. 하나님께

남편을 후히 없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해 봄 1다

이은재 성도 (C강남공동체)



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동시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는 맘을 삼짝 흘림 정도로 많이 유해졌습니다.

우리 부부사이가 많이 나빠졌을 때 하나님 제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의 은혜로 차츰차츰 회복되더니 급기야는 앞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크 작년에 부부학교가 오픈하면 꼭 가자는 확 신 사랑이 저를 통해 남편에게 더더욱 흘 답을 남편에게 얻어내기까지에 이르렀습니 다

두둥! 드디어 부부학교 모집 광고를 보고 무생채 반찬을 떨어뜨리지 않고 늘 해줘야 이렇게 교회를 떠난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하는 부부학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그 어느 날, 남편의 입에서 "나도 너 따라 나 감사하지요!

시작하면서의 기대는 남편의 마음이 교회 라는 공동체를 보고 마음이 열려 한 발자 국이라도 교회에 가까이 오길, 더 나아가서 는 함께 예배드리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 니다.

부부학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나 태도, 사랑이 충분히 있다 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나 의 잣대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

남편 박성원은 모태 하고, 남편의 영혼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 신앙이지만, 13년째 고 은근히 기득권을 잡으려고 가정에서 점 교회에 나오고 있지 차 군립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 않습니다. 자신은 교 다. 반대로 오히려 남편은 저를 보호해 주 고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남편이 많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러가도록 정결하고 거룩하며 마음 다해 남 편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교회에 갈래"라는 말이 흘러나오길 기대하 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기회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리며, 좋은 강사님들과 프로그램, 섬김과 헌신으로, 마음 다한 중보로써 우리를 섬 겨주신 부부학교 목사님과 스텝분들께 정 말 감사드립니다.



<u>대한한부모협회</u> 도담도담

'도담도담' 아이들이 아무런 탈 없이 무럭무럭 커나가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이처럼 예쁜 우리말을 이름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은 이름처럼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인식 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많은 한부모가족 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도담도담'은 부모 중 한쪽의 돌 봄을 받지 못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 를 박탈당한 아이들과 홀로 육아와 생업을 감당하느라 지친 한부모들을 돕기 위해 다 양한 사역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계기

현재 도담도담 섬기고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 는 김미경 대표는 자신의 딸이 한부모의 삶 을 살아가는 힘겨운 모습을 보고 한부모가 족 지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운 현실 속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 고 소득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남들의 손가 락질이 두려워 엄마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선 내 손주부터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 도 한부모가족을 향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딸 과 같은 한부모들이 세상이 참 많을 텐데'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 서로 토닥토닥 위로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도담도담을 창립하게 되었습 니다. 한부모들끼리 서로 위로해 주고 아이들 이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작지만 함께 도 울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자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도담도담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양육비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위소득 문제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으면 한부모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양육비도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칫 한부모가족지원 기준 소득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담도담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한부모들의 자존감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자녀가 자랄수록 육아와 생계를 감당하느라 너무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담도담이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가되어주면서 함께 외로움의 시간 이겨내고 삶의 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한부모 스스로 당당한 자세에서부터 스스로 격을 높일 수 있는 언 어를 가르치고 알코올중독이었던 회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살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격려로 삶에 대한 소망과 엄마로서의 사 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도담도담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나눔 이벤트, 어려운 한부모를 다른 지원 단체와 연결시켜 주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 다. 또한 미술 작품 전시회를 위한 도담도담 예술제, 향기박스 지원, 물품 나눔, 장학금 지 원, 긴급 생계비 및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계 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이 외롭지 않고 함께 한부모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 도록 힘과 격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게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힘을 내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 또한 장학금 과 후원을 통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쳐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돌 보고 회복하며 혼자 걷는 길이 아닌 함께함 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계속해서 이 사역 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2025년 1월에는 그동안 도담도담을 함께 이 끌어 오시던 고 정서호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그동안 진 행해 오던 사역과 관계, 여러 가지 행정, 법적 절차들을 수습하고 정리하며 회복하는데 김 미경 대표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의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 니다. 그동안 달려온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 들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도담도담을 통해 더욱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욱 많은 중보기도를 부 탁드립니다.

[도담도담을 위한 기도]

- 1. 지난 1월 고 정서호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인해 도담도담의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미경 대표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 2. 많은 한부모 가정이 도담도담을 통해 힘과 격려를 얻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평안과 안정을 얻게 하옵소서.
- 3. 새로운교회와의 동역을 통해 도담도담의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욱 풍성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혜있는지는궁창의빛과같이빛날것이요많은사람을옳은데로돌아오게한지는별과같이영원토록빛나라라(단 12:3)

영아부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

7/5(토), S하우스

유아부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

7/12(토), S하우스

유치부

반짝반짝 하나님의 아이들

7/26(토), S하우스

아동부

다니엘 임팩트

8/1(금)-3(주일), S하우스

유년부

다니엘 임팩트

8/1(금)-3(주일), 너리굴 수련원(안성)

초등부

다니엘 임팩트

8/1(금)-3(주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평)

중등부

Starstand: Unshakable&Radiant

7/25(금)-27(주일), 청포대 썬셋(태안)

고등부

일어나라, 믿음의 세대여

(Arise, the Faith Generation)

8/8(금)-10(주일), 청포대 썬셋(태안)

KIDS

Daniel Impact

8/8(금)-10(주일), 영아부실

JUNIOR

Daniel Impact

8/15(금)-17(주일), 포레스트 펜션(양평)

YEM

Daniel Impact

7/18(금)-20(주일), 한옥예향(홍천)





7/2 이준희 목사

7/16 조은영 목사

7/30 김소리 목사

7/9 <u>안한나 교수</u> (뗏불트리니티 교학처장, 구약학 교수)

7/23 이승호 목사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삽준빌딩 3층